

사마리안퍼스 한국 지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2020년 참가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다

2021-02-09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마리안퍼스 한국 지부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에 있는 26개 교회와 10개 학교 및 단체에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를 진행했습니다.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해질 선물은 개인별로 혹은 가정 단위로 준비하여 사마리안퍼스로 보내왔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역에서 준비해 보내온 수백 개의 선물상자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도움이 필요한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해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개인, 학교, 교회, 시민단체 등이 전국에서 약 3,000개의 선물을 사마리안퍼스 한국 지부(SPK)로 보내왔습니다. 2020년에 사마리안퍼스의 다른 지부에 모인 선물들을 포함하여 구백십만 개가 넘는 선물상자를 전세계의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OCC는 1993년부터 운영되어온 프로그램이지만 SPK는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OCC를 국내에 도입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장난감, 학용품과 위생용품과 같은 물품으로 꽉 채운 선물상자를 받는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선물상자가 평생 처음 받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1993년 이래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1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1억 8천6백만 개 이상의 선물로 가득 채운 선물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전세계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21대를 갖추고 있다

조치원성결교회 최명덕 담임목사는 “선물을 받고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고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외국인학교 기독교 사역 코디네이터인 김진 씨도 이번에 진행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감상을 남겼습니다. “우리학교는 봉사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초등학생들이 몽골에 사는 어린이들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각 선물 상자에 선물을 포장하면서 재미있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정들, 교회들의 마음이 감동받아 수백만 개의 선물상자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사마리안퍼스 대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전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선물들이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사마리안퍼스 CEO)

선물상자를 받은 많은 어린이들이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의 12개 수업으로 구성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가장 위대한 여정에 등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린이들에게 안내해줍니다. 2009년 이후 2천3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했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maritanspurs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후원에 관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samaritanspurs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기부사역팀(02-2105-1864 또는 rachel.ahn@samaritanspurse.or.kr)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소개

사마리안퍼스는 초교파 복음주의 국제 구호 전문 단체로,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의료선교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부이며 본부 대표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국제 긴급 구호 활동, 의료 선교 및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과 해외 미전도 지역 어린이 사역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 관련 문의

기부사역팀(02-2105-1864 또는 rachel.ahn@samaritanspurse.or.kr)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